

“두 개의 언어로 말하고, 신안의 인재로 키운다”

신안군·신안교육청, 1박2일간 다문화 가정 12세대 대상 이중언어와 함께 미래 역량 키우는 ‘다문화 가족동행 캠프’

신안군과 신안교육지원청은 지난 22일부터 1박 2일간 관내 다문화 가정 12세대(62명)를 대상으로 이중언어와 함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다문화 가족동행 캠프’를 개최했다.

이번 캠프에서는 다문화 학생이 가진 이중 언어 강점을 바탕으로 자긍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엄마 나라말 배우기, 토크레이팅(역할극)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 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서로 다른 문화에서 비롯되는 가족 간의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다문화 학생과 부모가 함께 참가하여 이중 언어를 활용한 가족 소개, 춤, 노래 등의 가족 정기자랑을 펼쳐 자신감과 자신의 장점을 자

유롭게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동남아시아 전통 놀이를 즐기며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갈등 또는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역할극으로 이해하고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모두가 다름없는 한 가족임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재)신안복지재단(이사장 이충만)에서 캠프에 참가한 다문화 가족과 학생을 위해 300만 원 상당의 사랑의 물품과 문화상품권을 전달하여 다가올 추석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다.

김광명 다문화 협의회장은 “가족과 화합할 수 있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관계자분께



감사함을 전하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두 개의 언어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신안군에서는 이들의 장점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덕주기자

영광군, 제17회 영광군 자원봉사대회 개최

영광군은 오는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2주간 영광군 관내 일원에서 제17회 영광군 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마음 더해 희망 나누는 행복한 영광!”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및 이태원참사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지 못하다 4년 만에 다시 개최하게 되어 그동안 철회된 자원봉사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다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중요한 대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가신청은 10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대회기간 중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참가 대상은 개인, 가족, 동호회, 기업(회사), 사회단체, 학교 등 군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활동분야는 어려운 이웃 생활편의지원, 주거환경개선, 보건 의료 등 대민분야와 문화행사, 환경보호, 안전·방범, 재해·재난·응급구조 등 사회분야로 지역공동체 및 이웃을 위한 모든 활동이 포함된다.

군은 대회 후 심사를 통해 우수단체 6개, 우수자원봉사자 6명을 선발하여 올 12월 중 시상식 및 우수자원봉사자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자원봉사센터(☎350-4872, 350-5349, 350-5788)로 문의하고 참가신청서는 영광군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아 신청하면 된다.

영광=서희권기자



목포시, 전국(장애인)체전 성화봉송 주자교육 실시 62명 봉송요령·안전교육 등

목포시가 제104회 전국체전 및 제43회 전국 장애인체전 성화봉송 주자를 대상으로 지난 22일 목포국제체육관에서 교육을 진행했다.

성화봉송 주자 모두 62명으로,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5일까지 만 1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해 구성됐다. 이날 교육은 주자별 봉송구간 확인, 성화봉송 진행 순서와 준비사항, 안전교육 등이 진행됐다.

성화봉송 구간은 총 16개 구간(주자 10, 차량 6)이다. 특히 이색 성화봉송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된 케이볼카, 근대문화, 건강을 테마로 3개 구간에서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흥미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1897년 개항 이래 우리시가 주 개최지가 되어 열리는 양대 체전인 만큼, 목포시를 대표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봉송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104회 전국체전은 오는 10월 13일~19일 주 개최지인 목포시를 중심으로 전남 22개 시·군, 70개 경기장에서 49개 종목이 분산 개최되며,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은 11월 3일~8일 12개 시·군, 38개 경기장에서 31개 종목이 열린다.

목포=기동취재본부

함평군 손불면, 미래 비전 위한 사업 설명회 성료

위원장 김진호 외 임원 8명 위촉·노고 격려

함평군 손불면이 지난 22일 ‘손불면 미래 비전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난 22일 손불면협의회 의실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윤영광 의장, 모정환 전남도의원, 군의원 등을 비롯한 재경손불면협의회 위원과 손

불면민 약 30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 이 군수는 재경손불면협의회 위원회의 위원장 김진호 외 임원 8명을 위촉하였으며 손불면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위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울러 손불면 발전 계획 발표와 함께 손

불면 미래 발전을 위한 군민들의 질의 시간을 가졌으며 함평만 해안도로 및 월천방조제 등 손불면 관광인프라 신설 등을 통한 손불면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손불면의 미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면민분들과 재경손불면협의회 위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손불면과 더 나아가 함평의 발전을 위해 군민들과 항상 소통하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준기자



무안군, 빅데이터 활용한 초의선사탄생지 활성화 추진

한국관광공사 추진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현장투어



무안군은 지난 20일 한국관광공사와 ‘2023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 현장투어를 초의선사탄생지에서 진행했다.

지난 5월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3 빅데이터와 함께하는 똑똑한 컨설팅(이하 ‘빅톡컨’) 공모사업에 ‘초의 르네상스 부흥사업’이라는 주제로 초의선사탄생지 활성화 방안 컨설팅 공모사업이 선정됐다.

이날 현장투어는 한국관광공사 주관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 벤처기업 등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7월 진행된 현장 사전답사에 이어 두 번째 방문컨설팅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무안군 관광발전 방향과 실질적인 연계사업 발굴을 위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빅톡컨’사업이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역관광과 관련된 통신, 카드, 교통, 숙박, 소셜네트워크 등 수집한 데이터를 정제해 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역의 관광 여건을 분석하고 지자체의 관광 사업 방향성 제시, 신규 사업을 제시하는 맞춤형 컨설팅 사업이며, 올해 전국 12개 사업이 선정되어 컨설팅 진행 중이다.

무안=이기성기자

영암군 청년참여예산위원회 주민제안사업 현장 실시

영암군 청년참여예산위원회가 22일 영암군 기록관에서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제안사업 현장을 실시했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2024년 예산편성 주민·청년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에 접수된 사업의 현황을 청년분과위원들이 방문해 확인하는 자리.

청년분과 위원들은 영암군의 설명으로 주민·청년예산사업으로 제안된 ▲영암읍 식당 활성화 ▲영암공원 ▲영암5일시장 내 어르신 의자 설치 ▲정소년·청년 공간 조성 ▲마을회관 CCTV 설치 사업에 대해 들었다.

이후 사업 현장에 찾아 해당 사업이 지역발전, 주민 복리 증진 등에 기여하는가 꼼꼼히 살폈다.

영암=조대호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